엠넷 '킹덤:레전더리 워'로 팬덤 확장에 성공

'즈즈즈'의 반란! 4세대 아이돌 그룹 스트레이 키즈·더보이즈·에이티즈(왼쪽 사진부터)가 데뷔 3~4년의 길지 않은 경력에도 방탄소년단 등 케이팝 대표주자들을 잇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사진제공 | JYP·크래커·KQ엔터테인먼트

4세대 아이돌 '즈즈즈' 이대로만 자라다오

〈스트레이 키즈-더보이즈-에이티즈〉

스트레이 키즈, 2집 110만장 돌파
더보이즈는 하프 밀리언셀러 성공
에이티즈, 미니앨범 '제로' 39만장

'즈즈즈'의 성장세가 무섭다.

4세대 아이돌 그룹의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JYP엔터테인먼트 소속의 스트레이 키즈와 크래커엔터테인먼트의 더보이즈, KQ엔터테인먼트의 에이티즈가 맹렬한 기세로 앨범 판매량과 팬덤을 확장하며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각각 2017년부터 이듬해 차례로 데뷔해 해외 활동을 병행해온 이들이 감염병 사태로 국내 활동에 초점을 맞추며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나란히 4월 엠넷 아이돌 경연프로그램 '킹덤:레전더리 워'를 통해 새로운 음악과 퍼포먼스, 멤버들의 개성을 드러내며 화제를 모아 '즈즈즈'라는 별칭을 얻었다. 특히 방탄소년단 이후 아이돌 그룹의 생명력과도 같은 셀프 프로듀싱과 '세계관'으로 무한성장 가능성을 키운다.

선두에는 스트레이 키즈가 섰다. 최근 정규 2집으로 밀리언셀러 대열에 합류했다. 8월31일 소속사에 따르면 같은 달 23일 내놓은 정규 2집 '노이지'(NOEASY)가 가온차트 집계 기준 110만장 판매고를 돌파했다. 실제 가맹점 판매량으로 집계하는 한터차트 기준으로는 발매 일주일 만에 64만1589만장 팔았다. 전작인 정규 1집 리패키지 앨범 '인생'의 첫 일주일 판매량보다 41만장 많은 수치로, 2018년 데뷔 이후 최고 성적이다.

특히 '노이지'는 JYP엔터테인먼트가 제작한 앨범 가운데 처음으로 100만장을 넘겼다. 소속사 수장인 박진영 대표 프로듀서에게 최초로 밀리언셀러의 영광을 안긴 '효자'인 셈이다.

더보이즈도 데뷔 이후 처음으로 하프 밀리언셀러 앨범을 보유하게 됐다. 8월9일 발표한 여섯 번째 미니음반 '스릴링'을 첫 주 52만장 판매하면서 이들의 앨범 가운데 최다 초동 기록을 2.5배나 초과했다.

에이티즈도 자신감에 가득 차 있다. 13일 새 앨범 '제로:피버 파트 3'으로 컴백하는 이들은 '킹덤'의 효과를 누리겠다는 각오다. 3월 발표한 여섯 번째 미니음반 '제로:피버 파트 2'로 39만장의 판매고를 기록하고, 팬카페 가입자도 6000여명으로 크게 늘어난 만큼 이번에도 그 이상의 성적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컴백에 앞서 '이터널 선샤인'과 '데자뷰' 등 두 곡의 음원 가운데 1분30초가량 미리 공개한 이들은 팬 투표로 활동곡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D.P.' 정주행 러시 살벌한데 공감가네

탈영병 추적 헌병대 이야기 화제
2014년 군 현실 적나라하게 묘사

"내내 숨이 턱턱 막혔다"면서 "불편했다"고 말한다. 그래서 "PTSD가 왔다"면서도, "정주행"하고, 불편한 만큼 "너무 진짜 같고, 너무 공감된다"는 이들이 넘쳐난다. 기어이 "눈물이 났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가 8월27일 공개한 오리지널 시리즈 'D.P.'의 6회분을 "정주행"한 이들이 SNS를 통해 드러낸 시청 소감이다. 이들은 드라마가 그려낸 부조리한 '정밀화'에 탄복하며 "진심 시즌2까지" 기대하고 있다.

'D.P.' 속 안준호 이병 정해인(맨 왼쪽) 등 사병들이 얼차려를 받는 장면. 사진제공 | 넷플릭스

●"현실 고증!"

'D.P.'는 탈영병 추적에 나선 헌병대 군무이탈 체포조(Deserter Pursuit)의 이야기. 이병 안준호(정해인)와 상병 한호열(구교환)을 중심으로 동료 사병들과 군 간부들의 모습을 그린다.

드라마는 이를 사실적으로 묘사하며 군내 폭력과 가혹행위도 고발한다. 일명 '하이바'(헬멧)를 든 채 '기마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얼차려부터 코를 고는 후임병의 얼굴에 방독면을 씌우고 물을 들이붓거나, 바지를 벗겨낸 채 음모를 불로 태우려 하거나, "로열젤리"라며 후임병의 입 안에 침을 뱉어내려는 선임병들의 모습을 담았다.

이를 지켜보며 SNS를 통해 시청 소감을 밝힌 이들은 대부분 '군필자'들이며 '예비역' 남성들이다. 자신들이 겪은 과거 군 복무 경험을 떠올리며 드라마가 그려낸 상황에 공감하고 있다. 실제로 드라마는 원작 웹툰 'D.P. 개의 날'의 김보통 작가가 D.P병으로 복무했던 경험을 녹여낸 이야기이다.

일부 여성 시청자도 "진짜 저럴까 싶다가 진짜로 저럴 수도 있겠다 싶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성은 "군 복무 중인 오빠 생각이 난다"며 현역 장병들을 위로하는 댓글을 SNS에 올렸다.

●"수통, 1953년"…"고치려, 바꾸려 해도"

드라마는 안준호와 한호열이 쫓는 탈영병들의 사연에도 주목한다. D.P병 출신 한 누리꾼은 "수백건의 탈영 동기를 들었지만, 대부분 나름의 사연을 가졌다"고 썼다. 상당수가 군내 폭력과 가혹행위를 견뎌내지 못한 채 군무이탈한 이들이기도 하지만 드라마는 탈영병들의 이야기를 통해 또 다른 현실을 돌아보게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처럼 많은 시청자의 공감 속에 드라마는 넷플릭스를 통해 해외에서도 선보이고 있다. 홍콩, 베트남, 싱가포르 등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 '많이 본 콘텐츠' 상위권에 올라 있지만, 드라마 속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공감과 이해의 폭은 SNS 시청 소감이 보여주듯 국내 시청자의 것일 수밖에 없다.

극중 다정다감하기도 했지만 끝내 부대를 뛰쳐나간 탈영병은 "수통에 적힌 날짜가 1953년"이라며 차갑게 웃는다. 쉽게 바뀌지 않는 폭력적 현실에 대한 냉소이다. 한 시청자는 "내가 썼던 수통은 1921년제였다"고, 또 다른 이는 "고치려 해도 안 되고, 바꾸려 해도 안 되고"라고 썼다.

드라마는 2014년의 '현실'이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히어로물·시리즈물 공습…할리우드 강자들, 달마다 몰려온다

'007 노 타임…' 개봉, 10월엔 '듄'
11월 '이터널스' 12월 '스파이더맨'

할리우드 '강자'들이 몰려온다.

할리우드 슈퍼 히어로물 시리즈와 블록버스터 영화가 하반기 한국시장을 공략한다. 추석 연휴 작품을 빼고는 하반기에 이렇다 할 한국 기대작이 눈에 띄지 않아 할리우드 대작들은 벌써부터 물량공세를 시작했다.

8월31일 수입배급사 유니버설픽쳐스는 '007 노 타임 투 다이'를 29일 오후 5시 전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개봉한다고 밝혔다. '007' 제임스 본드의 마지막 미션을 그린 작품으로, 다니엘 크루거가 주연했다.

이를 시작으로 '시카리오' 시리즈와 '그을린 사랑' 등을 연출한 드니 빌뇌브 감독이 국내에도 팬덤을 구축한 배우 티모시 샬라메를 비롯해 레베카 퍼거슨, 하비에르 바르뎀 등과 함께한 블록버스터 '듄'을 10월 선보인다. 마동석과 안젤리나 졸리, 셀마 헤이엑 등이 주연한 마블스튜디오의 슈퍼 히어로물 '이터널스'도 11월 관객을 만난다. 마블은 뒤이어 12월 '스파이더맨:노 웨이 홈'을 공개한다. 톰 홀랜드가 주연해 국내 관객의 지지를 얻어온 '스파이더맨' 시리즈가 다시 한 번 힘을 발휘할지 관심을 모은다.

키아누 리브스의 대표작인 SF대작 '매트릭스'도 네 번째 이야기 '부활(Resurrection)'을 12월 공개할 예정이다. 키아누 리브스는 1999년 '매트릭스'에 이어 2003년 2편 '리로디드'와 3편 '레볼루션'을 동생 릴리 워쇼스키와 함께 연출한 라나 워쇼스키 감독과 손잡았다.

연출자와 스타급 연기자들은 물론 시리즈의 면면만으로도 규모를 엿보게 하는 작품들이다. 그에 걸맞게 각 수입·배급사들은 최근 일명 '선재물(선전재료물)'을 잇따라 공개하고 있다. '이터널스'는 3분 분량의 예고편을 극장은 물론 OCN 등 TV 채널로도 선보였다. 유니버설픽쳐스는 '007 노 타임 투 다이'의 예고편과 홍보 영상, 포스터 등 공개 일정을 담은 '타임테이블' 포스터를 내놨다. '매트릭스4'의 워너브라더스는 온라인을 통해 컨퍼런스를 열고 영화를 소개했다.

이전에는 흔치 않았던 방식으로, 각 영화에 거는 수입·배급사들의 기대감을 드러낸다. '기적'과 '보이스'가 '흥행 2파전'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 추석 연휴시즌을 제외하고 이후 한국영화 기대작이 크게 눈에 띄지 않고 있어 더욱 그렇다.

윤여수 기자

연예뉴스 HOT 5

BTS, 英 'MTV 핫티스트 슈퍼스타' 1위

방탄소년단

그룹 방탄소년단이 영국 MTV로부터 '최고의 슈퍼스타'로 또 다시 선정됐다. 2019년 이후 3년 연속이다. 8월31일 영국 MTV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4일(한국시간)까지 진행한 투표에서 방탄소년단이 1930만표를 얻어 'MTV 핫티스트 슈퍼스타 2021'(MTV's Hottest Superstar 2021)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2013~2015년 연속 1위에 올랐던 그룹 원디렉션과 함께 최다 1위 기록을 세웠다. 한편 이날 방탄소년단은 노래 '버터'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 최신 차트(9월4일자)에서 7위를 차지했다.

여자배구팀 주축 멤버 '나 혼자 산다' 출연

김연경

김연경을 비롯한 2020 도쿄올림픽 여자배구 대표팀의 주축들이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다. 8월31일 MBC 관계자는 "김연경과 함께 김수지, 양효진, 김희진이 29일 '나 혼자 산다'의 야외촬영을 마친 데 이어 조만간 스튜디오 녹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들은 프로그램에서 이번 올림픽에서 4강에까지 오르기까지 이야기 등 다양한 에피소드를 전할 예정이다. 김연경은 앞서 '나 혼자 산다'에 여러 차례 출연해 자연스러운 일상을 공개한 바 있다. 이들의 출연분은 이달 중 방송 예정이다.

유진, 여성용품 광고모델 수익 전액 기부

유진

연기자 유진이 선한 영향력을 펼친다. 8월31일 소속사 인컴퍼니에 따르면 유진은 최근 여성용품 기업의 광고모델로 나서 받은 출연료 전액을 국내 저소득층 청소년 지원을 위해 기부하기로 했다. 후원금은 생필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에게 여성용품 등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유진은 앞서 결식아동 돕기 프로젝트, 아동학대 국민감시단 캠페인 등에 꾸준히 참여해왔다. 소속사는 "유진이 모델로 나선 다양한 기업들과 함께 기부 및 봉사활동을 펼치는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카카오TV, 일주일간 '카티비 정주행 위크'

카카오TV가 오리지널 시리즈 론칭 1주년을 맞아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인기 콘텐츠의 모든 에피소드를 무료로 다시 볼 수 있는 '카티비 정주행 위크'를 진행한다. 해당 오리지널 시리즈는 '톡이나 할까?' '개미는 오늘도 뚠뚠' '찐경규' '체인지 데이즈' 등 예능프로그램과 '며느라기' '연애혁명' '도시남녀의 사랑법' 등 드라마를 포함해 모두 12편이다. 31일 카카오TV는 "1년 동안 오리지널 콘텐츠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준 이용자들을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

심진화 '김밥집 홍보' 논란 관련 사과

심진화

개그우먼 심진화가 경기 성남 분당의 김밥집 프랜차이즈 식중독 사태 이후 3주 만에 심경을 밝혔다. 8월31일 심진화는 SNS를 통해 "모든 일에는 아주 큰 책임감도 따른다는 걸 매사 경험에서 느끼고 깨닫고 있다"면서 "지금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깊게 새기게 된다"고 김밥집 식중독 사태를 간접 언급했다. 심진화는 남편 김원효와 함께 8월 식중독 사태가 일어난 점포를 운영한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방송을 통해 프랜차이즈를 홍보한 바 있어 논란을 모았다. 두 사람은 당시 "해당 브랜드를 함께 하는 사람들로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